

‘피코아줌마’들이 오는 8일 다시 미국 원정시위에 나선다.

미국에 있는 ‘피코노조’와 지원위원회’의 적극적 후원으로 이루어질 이번 제2차 ‘도미투쟁’에는 한국피코 노조 유점순(36) 위원장과 이연리(45) 통계부장, 강영효(29) 조합원 등 3명이 파견된다.

이들은 12월13일까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워싱턴·뉴욕·시카고 등 10여개 주요도시를 돌며 피코 투쟁과정을 알리고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순회집회를 열 계획이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지난 4월의 1차 도미투

쟁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노동법외 해외진출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피코소송’은 내년 3월께 정식재판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여론의 향방이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코아줌마들도 이번 미국 원정시위에서는 되도록 많은 도시를 돌며 미국 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피코노조원들은 그동안 2차 도미투쟁을 위해 국내 후원회와

협의회 주축로 ‘미국으로 출정하는 피코노조의 승리를 위한 예배’가 열렸으며 오는 7일에는 부천시 삼정동 성당에서 같은 예배가 열리게 된다.

처음 3백여명에 이르렀던 사원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1백8명의 피코아줌마들은 일요일마다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회사 노조사무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 소식지 ‘민족의 자존심’을 펴내고 있는 등 ‘승리의 그날’을 위해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후원회의 도움과 자신들의 직접 일용노동을 통해

‘피코 아줌마’ 다시 미국행

내년봄 재판 앞두고 정당성 홍보…기금모금 집회도

“민족적 자존심 걸고 이기고 돌아오겠다” 결의 다져

쟁에서 피코아줌마들은 미국내 노조·교회기관·인권단체 등의 지원아래 뉴욕주 시러큐스의 피코본사 앞에서 단식투쟁 등을 벌여 미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히치콕 피코사장을 미연방법원 시러큐스 지원에 계약 위반과 임금 체불 혐의로 제소하고 도미 98일 만에 돌아왔었다.

피코사에서는 곧바로 피코아줌마들의 제소에 대항하여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으나 지난 10월9일 법원에서 피코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 법정에서 정식으로 피코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피코아줌마들에게 밝은 희

합계 홍보활동과 모금운동을 통해 활발히 벌여 왔다.

지난 7월11일 결성된 ‘피코노조 국내후원회’(회장 최병호 외 국인기업노조협의회 의장)는 민요연구회(회장 민영)와 공동으로 피코노조의 투쟁을 극화한 <아들아, 이젠 말하리라>를 서울·인천·마산·수원·성남 등 전국 5개 도시에 순회공연해 얻은 수익금을 피코노조에 기부했다.

이밖에 젊은 미술인들의 모임인 ‘후천공방’은 ‘피코만화’와 ‘피코 티셔츠’를 만들어 팔아 후원하고 있고 실천문학사에서는 ‘피코소설’을 이번달 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종로3가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

그동안 2백40만여원을 모았으나 미국에 가는 데 필요한 비행기 값 3백여만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미국인 사장이 임금을 떼어먹고 도망간 지 2년이 다 돼가면서 피코아줌마들의 투쟁도 갈수록 어렵지만 일반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피코’가 사라져가는 것이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한다.

‘민족적 자존심’을 걸고 또다시 미국 출정에 나서는 유점순 노조위원장장은 “한국의 노동자라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자식 세대에는 이런 싸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